

인문예술통합교육이 청소년의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Integrated Humanities and Arts Education upon the Development of Adolescents' Sociability

허묘연¹⁾, 최현정²⁾

Myo Yeon Huh¹⁾, Hyun Jung Choi²⁾

요 약

본 연구는 최근 문화예술과 인문학의 접목에 주목하여, 다양한 분야의 문화예술을 통합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것의 인문학적 교육 측면의 효과를 체계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큰 변화를 경험하는 과도기에 있는 청소년의 사회성 발달을 증진시키는 프로그램 개발을 목적으로 하였다. 개발된 프로그램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철학과 무용, 영화, 시각예술이라는 다양한 분야의 예술과 인문을 통합시킨 교육이다. 즉 다양한 분야의 문화예술적 자극들을 통합적으로 체험하고 이를 다시 창조적인 산물로 만들어내는 활동에 초점을 두었다. 또한 현대의 물질주의와 개인주의적 사고를 벗어나, 나로부터 너와의 관계, 그리고 나를 포함한 우리, 환경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태도 등 인문학적 소양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특히 청소년의 사회성 발달에 초점을 맞추고 가능하면 상호작용이 많이 일어나는 소재를 제공함으로써 갈등 해결 능력과 사회적 기술을 효과적으로 익힐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이외에도 대부분의 수업을 공동 작업으로 구성함으로써 쉽게 소속감과 동료 의식, 공동체 의식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개발된 프로그램을 청소년에게 8회에 걸쳐 실시하고 프로그램 실시 전과 후의 청소년의 사회성을 비교한 결과, 청소년의 사회성이 전반적으로 증진되었으며, 하위요인 중 문제해결, 공동체성, 대인관계, 성취동기, 자기관리 순으로 유의미한 향상을 나타냈다. 반면에 자아존중감, 자기표현, 낙관성, 행복감은 유의미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인문예술 교육프로그램이 청소년의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있음을 검증함으로써 문화예술분야의 인문교육적 가능성을 확장시키는데 기여하였으며, 기존의 프로그램과는 차별적이고 다양한 접근 방식을 통합함으로써 청소년의 관심과 관여를 이끌어내었다고 본다.

핵심어: 청소년, 사회성, 인문예술교육, 무용, 시각예술, 영화

1) Dept. of Counseling Psychology, Seoul Cyber University, Solmaero 49gil 60, Gangbukgu, Seoul, 01133, Korea
e-mail: moy23@iscu.ac.kr, (Corresponding Author)

2) Dept. of Contents Planning and Production, Seoul Cyber University, Solmaero 49gil 60, Gangbukgu, Seoul, 01133, Korea e-mail: proartist04@naver.com

Received(May 10. 2018), Review (May 28. 2018), Accepted(June 30. 2018)

Abstract

According to the educational trend of integrating cultural arts and humanities in recent years, this study developed an educational program that integrated humanities and arts in various fields and identified the effects of the humanities program, especially focusing on adolescents' sociability. The main features of the program developed are as follows: an educational program that integrates arts and humanities of various fields such as philosophy, dance, film, and visual arts. In other words, the program focused on developing various activities that enhanced cultural and artistic experiences using stimuli from various fields to create different products. In addition, the program was constructed to promote humanistic development, for example, relationships with others and our attitudes of living together in our environment rather than the contemporary materialism and individualism. This study specifically focuses on the social development of adolescents and is designed to allow the effective acquisition of conflict resolution abilities and social skills by providing interactive materials as much as possible. In addition, most of the lessons are collaborative in structure so that the participants could easily develop a sense of belonging, fellow consciousness, and community consciousness. A comparison of the sociability of adolescents before and after the program resulted in the overall improvement of adolescent sociability and the sub-factors of: problem solving, cooperatio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chievement motivation, and self-care improved significantly. On the other hand, self-esteem, self-expression, optimism, and happiness did not show any significant changes. Through the confirmation of the effects of the integrated humanities and arts program developed for this study on the social development of adolescents, this study contributed to expanding the possibilities of humanities education in the fields of culture and the arts. Also, it differentiates from previously existing programs as it has attracted the interests and involvement of youth by integrating various approaches from a variety of disciplines.

Keywords: adolescent, social development, integrated humanities and arts, dance, film, visual arts

1. 서론

최근 인문, 과학, 기술 등 각각의 세분화된 학문을 결합하고 통합할 뿐만 아니라 융합으로써 새로운 분야를 창출하는 융합 과정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으며, 나아가 예술을 새로운 항목으로 가미하여 다양한 요소들을 결합한 융합예술교육이 시도되고 있다. 특히 이를 아동과 청소년의 교육과정에 확대 적용하여 청소년의 인문학적 소양과 정서 발달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이 교육부의 방침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금까지 많은 프로그램들이 제작되었으며, 문화예술, 인문예술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지금까지 진행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인문예술교육은 그 특성상 매우 다양한 장르와 영역의 범주를 포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연구들은 문화예술의 다양하고 폭넓은 스펙트럼의 범주를 고려하기보다는 주로 미술이나 음악 등 단일 장르에 편중된 문화예술교육의 효과를 규명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프로그램이 진정한 인문과 예술, 교육의 융합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며, 연구 결과를 문화예술을 활용한 인문

학적 교육 효과로 일반화하기는 어렵다는 제한점이 있다고 본다.

또한 인문예술교육프로그램들이 개발, 시행되고 있으나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은 매우 제한적인 수준이다. 이들 대부분은 프로그램들에 대한 질적 관리가 부족하고 대부분 인문학적 수준의 프로그램 제시이거나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조사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청소년의 인성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효과성 검증 연구는 아직까지 미비한 실정이다[1]~[5].

이러한 제한점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문화예술의 다양한 영역이 교육에 융합되어 포함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기획, 제작하였으며, 이것이 실제 인문학적 소양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 교육적 가능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인문학적 소양 중에 특히 청소년이 자신에 대한 이해와 타인과의 관계, 그리고 공동체성이라는 개념의 획득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이는 청소년의 '사회성'이라는 개념 속에 녹여 프로그램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청소년들의 발달에 도움을 주는 융합예술교육 개발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앞으로의 청소년들에게 양질의 융합예술교육이 제공될 수 있는 분위기 정착을 위하여 프로그램 개발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더욱 활발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촉진하기를 기대한다.

2. 이론적 고찰 및 교육 프로그램

본 연구에서의 인문예술교육의 의미는 예술교육과 인문학적 소양이 결합한 통합예술로서, 문화예술 자체가 교육의 목적이 되는 문화예술을 위한 교육에 목적을 두는 것보다는, 올바른 인격함양을 목표로 문화예술을 교육의 도구적 수단으로 활용함으로써 문화예술과 삶이 연계된 교육적 가치를 추구하는 교육에 제한하고자 한다[6].

보다 세부적으로는 인문예술 융합교육은 인문교육의 절대적 관념론을 지향하는 이론교육론에서 예술의 다양성과 개성을 기반으로 하는 경험활동이 결합된 교육을 의미한다. 얇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감각을 통해 직접 행함으로서 인지하고 숙지하는 것이다. 또한 예술활동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표현(작품)의 시작과 끝까지의 과정을 중시한다. 그 과정 속에서 각자 고유의 표현력 및 구성력을 키워나가게 되고, 스스로의 새로

운 모습을 발견하여 자아를 찾아가게 된다. 사람은 다양한 교육과 학습을 통한 사회화를 거치게 되는데, 특히 아동, 청소년기의 인문예술교육은 문화예술적 소양을 함양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감성 및 인성개발, 사회적응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7].

이에 따라 발달해가는 과정에 있는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교육은 더욱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으며, 많은 선행연구들은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아동의 창의성, 행복감, 의사소통 능력 및 대인관계 능력, 사회성이 향상된다고 보고하고 있다[8]~[12]. 세계적으로도 인문예술교육은 그 교육방법과 효과를 인정받아 더욱 넓혀나가는 추세이며, 대표적으로 핀란드의 초등학교 교육방법[13]과 뉴욕링컨센터의 예술교육방법[14]을 들 수 있겠다. Jermyn은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아동의 정서적 행복감, 자신감, 학교 및 사회에 대한 긍정적 태도형성, 자존감 향상을 보고하고 있으며[15], Scottish Government Social Research는 오케스트라를 통한 문화예술교육이 학생들의 자신감, 행복감, 사회성, 집중력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16].

현재 대한민국 교육부도 2013년부터 '자유학기제'를 시행하여 문화예술 교육의 수용 폭을 확대하고 있다. 자유학기제는 학생들의 획일화된 교육과 입시위주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학생들의 내적성장을 돕기 위한 제도이다. 학생들에게 시험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토론·실습 등 직접 참여함으로써 진로탐색 및 예술과 체육활동, 주제선택활동, 동아리활동 등 체험활동으로 교과과정을 유연하게 하는 제도이다.³⁾ 이 다양한 연계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목표와 꿈을 설정하고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 답을 찾게 되며, 궁극적으로는 인성개발과 자아정체감 형성을 촉진하게 된다[17].

본 연구에서 시행한 인문예술교육 프로그램은 2017 서울문화재단 운영사업인 청소년 인문예술교육 <예술로 함께> 공모에 선정된 것이다 [18]. 서울문화재단은 예술교육의 철학을 기반으로 '미적체험'을 제공하여 창의예술교육을 주도하는 기관으로서 본 공모 사업은 청소년 자유학기제의 매칭을 위한 창의예술교육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철학·무용분야, 시각예술분야, 영화분야 석사 이상 전공자 3명이 공동연구자로 선정되어 8주 과정의 블록 수업으로 구성된 인문예술융합 교육프로그램을 함께 연구·개발하였다. 교육과정 명은 <세계 속의 나, 너, 우리>이다. 프로그램의 내용은 <표 1>와 같다.

[표1] <세계 속의 나, 너, 우리> 인문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수업내용

[Table 1] <I, you, us in the world> Contents of arts education program

1차시	이미지를 통해 나의 몸 알아가기 (영화, 무용, 철학)	<세계 속의 나·너·우리>의 소개하기
		<나를 알아가기>_ 나의 몸, 나의 구조를 이해한다. - 반듯한 자세 및 중요성 알기 (서 있는 자세, 앉아있는 자세) - 척추모양을 인지하고, 체험을 통해 나의 몸 알아가기
2차시	나의 몸 바로잡기 (무용, 철학)	- 걷는 자세, 서 있는 자세, 앉아있는 자세(책 보는 자세) 등 ; 나의 몸구조를 재인식하기 - 나와 너의 관계 이해하기 ;그리스로마신화의 아폴론과 디오니소스의 신을 이해하고, 성격을 이해함으로써 표현해보기
		- 나와 너의 관계 맺기 ; 나와 너의 관계를 ‘실’을 통해 이해하기 (네트워크형성) ; 실을 통해 시공간의 개념을 재인식하고, 그 공간(관계)를 이해하고 탐험하기 - 실로 만든 공간 탐험 ; 3인 1조로 움직임 만들고, 사진을 찍어 기록하기
3차시	나와 너의 관계 (무용, 영화, 시각예술)	- 나와 너의 관계를 ‘실’을 통해 이해하기 (네트워크형성) ; 실을 통해 시공간의 개념을 재인식하고, 그 공간(관계)를 이해하고 탐험하기 - 실로 만든 공간 탐험 ; 3인 1조로 움직임 만들고, 사진을 찍어 기록하기
		- 3차시 실로 만든 3차원의 공간을 사진설치를 이용해 2차원의 공간으로 재구성해보기 - 기억과 기록의 의미를 이해하기
4차시	나와 너의 기록 (무용, 영화, 시각예술)	- 3차시 실로 만든 3차원의 공간을 사진설치를 이용해 2차원의 공간으로 재구성해보기 - 기억과 기록의 의미를 이해하기
		- 움직임과 시각자료를 통해 환경문제 이해하기 - 각 재료(재활용품)가 가진 소리를 이해하고 응용하기 ; 재활용품을 활용한 예술을 이해하기
5차시	나와 너를 둘러싼 우리 (시각예술, 음악)	- 움직임과 시각자료를 통해 환경문제 이해하기 - 각 재료(재활용품)가 가진 소리를 이해하고 응용하기 ; 재활용품을 활용한 예술을 이해하기
		- 재활용품을 통해 악기 만들기 ; 각 재료가 가진 소리를 응용하여 타악기 만들기 (재활용품을 페인팅 재료를 이용하여 시각적으로 꾸미기) - 나만이 소리와 리듬 찾기 ; 각각 만든 소리를 합쳐 모듬별 새로운 하모니 만들기
6차시	나와 너를 둘러싼 우리 (시각예술, 음악)	- 재활용품을 통해 악기 만들기 ; 각 재료가 가진 소리를 응용하여 타악기 만들기 (재활용품을 페인팅 재료를 이용하여 시각적으로 꾸미기) - 나만이 소리와 리듬 찾기 ; 각각 만든 소리를 합쳐 모듬별 새로운 하모니 만들기
		- 새로 만든 하모니를 기반으로 공연 만들기 (모듬별) - 미니 콘서트 만들기 ; 콘서트를 발표하고 기록하기 - 발표의 중요성 이해하기 ; 수업과정 중 key word 9개 중 선택하고 준비하기
7차시	나와 너를 둘러싼 우리 (시각예술, 음악)	- 새로 만든 하모니를 기반으로 공연 만들기 (모듬별) - 미니 콘서트 만들기 ; 콘서트를 발표하고 기록하기 - 발표의 중요성 이해하기 ; 수업과정 중 key word 9개 중 선택하고 준비하기
		- 키워드를 선택하여 나만의 프레젠테이션 만들어 발표하기 - 발표자료를 전시하기 ; 질문하고 대답하기
8차시	나, 너, 우리를 내면화하기 (무용, 영화, 시각예술)	- 키워드를 선택하여 나만의 프레젠테이션 만들어 발표하기 - 발표자료를 전시하기 ; 질문하고 대답하기
		- 발표자료를 전시하기 ; 질문하고 대답하기

본 프로그램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개발된 인문예술교육 프로그램은 자유학기제가 추구하는 목적에 충실하도록 철학과 무용, 영화, 시각예술, 영화분야라는 다양한 분야의 예술과 인문을 통합시킨 교육이다. 즉 다양한 분야의 문화예술적 자극들을 체험하고 이를 다시 창조적인 산물로 만들어내는 활동을 통해 청소년은 정해진 답과 틀에서 벗어나, 상상력과 구상력을 개발하여 창의적인 사고력을 길러낼 수 있고, 실패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며, 자유롭게 생각을 표현하고 시도함으로써 경험을 통해 주체적이고 자주적으로 자기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본 프로그램은 <세계 속의 나, 너, 우리>라는 과정명에서 암시하듯이, 나를 알아가고, 너를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 '우리'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나를 포함한 환경과 그리고 세계를 이해한다는 것이 목표이다. 21세기 물질문명시대와 개인주의적 사고를 벗어나, 나로부터 너와의 관계, 그리고 나를 포함한 우리, 환경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태도와 같은 인문학적 소양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교육프로그램은 청소년의 인성발달 중 사회성 발달에 초점을 맞추어 기획되었다. 사회성은 개인이 사회적인 맥락에서 살아가면서 타인과 조화로운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것과 관련된 능력을 말한다. '사회성이 있다'라고 했을 때, 사회활동, 집단 활동을 즐기며 친구가 많고 협동적이며, 인정이 많고 남과 잘 어울리며 충돌이 적은 특성으로 이해되며, 이러한 특성은 인간이 사회 환경 속에서 생명을 유지하고 균형과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반응, 즉 적응해 나가는 능력을 말하며, 적응하는 성질 또는 사회관계의식을 의미한다[19]. 이러한 사회성은 어린시기부터 사회화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형성되지만, 특히 관심의 초점이 부모로부터 또래 친구에게 옮겨가고 부모와 가정으로부터 분리 개별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청소년기에는 또래가 청소년이 당면한 문제와 고민을 공유하는 존재로 정서적 심리적 안정과 지지를 제공할 뿐 아니라[20], 또래와의 갈등 및 사회적 타협 등 상호작용 경험을 통해 부모가 하지 못하는 중요한 기능인 청소년의 사회적 기술과 정체감 형성에 결정적 역할을 담당한다[21]. 이외에도 또래는 집단 소속감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주며 집단 속에서 위계와 협동심, 공동체의식을 경험하도록 한다. 청소년이 긍정적인 사회적 발달을 경험하게 되면 그 결과 긍정적 자아상과 자존감 형성에 기초가 된다[22]. 교육 프로그램은 가능하면 상호작용이 많이 일

어나는 주제로 제시하여 그 안에서 상호 의견조율과 해결, 통합 등의 경험을 극대화하도록 기획하여 청소년들이 갈등해결 능력과 사회적 기술을 효과적으로 익힐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교육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청소년들은 새로운 도전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해내고자하는 성취동기를 강화하고 문제해결력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며, 있는 그대로의 자신의 모습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고 이러한 인식은 청소년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극복하는 데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침으로써 자신감 및 자아존중감 향상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이상에서 기술된 자기표현과 성취동기, 공동체성, 대인관계, 자기관리 및 자신감과 문제해결력 등은 사회성에 포함된 하위요인들로서, 본 프로그램은 청소년의 전반적인 사회성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도록 의도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프로그램의 대부분의 수업은 공동 작업으로 이루어지며 모두가 협심하여 연습이 진행될 때 더욱 완성도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 내도록 구성되었다. 청소년들은 특히 집단활동에서 새로운 경험을 받아들이는데 수월하며 서로의 관심사나 감정들을 나눔으로써 쉽게 소속감과 동료 의식을 발전시킬 수 있다[23]~[25]. 따라서 청소년들은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타인들과 다양한 상황들에 직면하게 되고 그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경험을 통해 타인과의 관계에서 공동체의식을 고취시키고 대인관계 능력을 배양할 수 있다. 또한 또래와의 사회적 상호작용의 기회가 증가되며 갈등해결과 협업해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사회적 기술을 효과적으로 익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3. 연구방법

서울 한 지역의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3개의 반으로 나누어진 학생 74명을 대상으로 무용, 철학, 시각예술, 영화를 모티브로 구성된 <세계 속의 나, 너, 우리> 인문예술교육 프로그램을 2017년 5월부터 8주간에 걸쳐 회당 90분 블록 수업으로 진행하였다. 프로그램을 가장 잘 이해하고 직접 연구·개발에 참여한 연구자가 청소년 예술가교사(Teaching Artist)로 참여하여 수업을 진행하였다.

청소년의 사회성 관련요인의 변화를 비교하기 위해 사전-사후검사로써 교육 시작 전, 그리고 교육이 끝난 직후, 두 번 질문지를 통해 측정하고, 심층면접과 더불어 연구자가

각 주차별로 정리한 관찰일지를 통해 변화 과정을 비교분석하였다. 질문지는 보건복지부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한국 아동청소년 종합실태 조사'[26]에서 개발한 청소년의 사회성 발달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사회성 하위요인은 자기표현과, 성취동기, 공동체성, 대인관계, 자기관리, 자아존중감, 낙관성, 행복감, 자신감, 문제해결의 10개 하위요인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전체 사회성 척도에 대한 본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는 사전검사 .922, 사후검사 .903였다.

연구에 참여한 인원 중 결측치 및 이상응답패턴(사후검사 -30점 이상)을 나타낸 대상을 제외하고 56명에 대해 프로그램 사전-사후 사회성 비교검증을 하였다. 이상응답패턴을 나타낸 4명은 관찰일지 및 교사와의 면담을 통해 볼 때 학습문제가 있거나, 주의집중의 문제가 있어 평소에도 다른 수업에 참여하기 어려운 학생들이었다.

4. 결과

대응표본 t검증 결과, 참여 청소년들은 프로그램 참여 전보다($M=226.04$, $SD=27.43$) 참여 후에($M=231.84$, $SD=27.80$) 전체적인 사회성이 유의미하게 향상된 것으로 보고하였다($t(55)=3.252$, $p < .05$). 프로그램 실시 사전, 사후 검사의 사회성 척도의 검사결과는 표 1과 같다.

[표2] 사회성 척도의 사전·사후검사 결과

[Table 2] Pre and post test results of the social scale

	사전검사	사후검사	t
	M(SD)	M(SD)	
사회성(전체)	226.04 (27.43)	231.84 (27.80)	3.252**

** $p < .01$

프로그램 실시 사전, 사후 검사의 사회성 척도의 하위요인별 검사결과는 표 2와 같다.

[표3] 하위요인별 사전·사후검사 결과

[Table 4] Pre and post test results specific factors

	사전검사	사후검사	t
	M(SD)	M(SD)	
자기표현	15.29(2.48)	15.57(2.76)	0.966
성취동기	25.64(3.50)	26.29(3.77)	2.338*
공동체성	24.50(4.13)	25.38(4.24)	2.912**
대인관계	18.93(3.02)	19.43(2.66)	2.453*
자기관리	31.71(4.38)	32.66(4.73)	2.056*
자아존중감	39.84(5.64)	40.57(6.38)	1.342
낙관성	16.23(2.34)	16.50(2.58)	0.935
행복감	20.11(3.19)	20.20(3.08)	0.271
자신감	15.75(2.74)	16.46(2.83)	3.243**
문제해결	18.04(3.07)	18.79(3.30)	3.048**

* $p < .05$, ** $p < .01$

하위요인별 대응표본 t검증 결과, 참여 청소년들은 프로그램 참여 전보다($M=25.64$, $SD=3.40$) 참여 후에($M=26.29$, $SD=3.77$) 성취동기가 유의미하게 향상된 것으로 보고하였다($t(55)=2.338$, $p < .05$). 또한 참여 청소년들은 공동체성이 프로그램 참여 전보다($M=24.50$, $SD=4.13$) 참여 후에($M=25.38$, $SD=4.24$) 유의미하게 향상되었으며($t(55)=2.912$, $p < .01$), 대인관계가 프로그램 참여 전보다($M=18.93$, $SD=3.02$) 참여 후에($M=19.43$, $SD=2.66$) 유의미하게 향상된 것으로 보고하였다($t(55)=2.453$, $p < .05$). 뿐만 아니라 참여 청소년들은 자기관리에 있어서도 프로그램 참여 전보다($M=31.71$, $SD=4.38$) 참여 후에($M=32.66$, $SD=4.73$) 유의미한 향상을 나타내었으며($t(55)=2.056$, $p < .05$), 자신감도 프로그램 참여 전보다($M=15.75$, $SD=2.74$), 참여 후에($M=16.46$, $SD=2.83$) 유의미한 향상을 보고하였다. 마지막으로 참여 청소년들은 문제해결능력도 프로그램 참여 전보다($M=18.04$, $SD=3.07$), 참여 후에($M=18.79$, $SD=3.30$) 유의미하게 향상된 것으로 보고하였다.

성별에 따른 효과가 있었는지 여부를 검증하였으나,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청소년의 사회성 발달을 촉진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개발된 <세계 속의 나, 너, 우리> 인문예술융합교육프로그램이 실제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에 따른 주요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프로그램 실시 전보다 실시 후에 청소년의 사회성이 전반적으로 증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사회성의 하위요인 중 프로그램 전후에 자신감과 문제해결, 공동체성, 대인관계, 성취동기, 자기관리 순으로 유의미한 향상을 나타냈다. 주로 변화를 나타낸 공동체성과 대인관계, 문제해결 등의 요인들은 사회성 및 사회적 기술과 더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요인이다. 즉 본 프로그램의 활동은 주로 집단 속에서 공동으로 하는 작업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러한 활동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새로운 도전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자신감과 해내고자하는 성취동기가 강화되었을 것으로 보이며[23][24], 함께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문제해결력이나 대인관계 기술을 획득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 프로그램은 현대의 개인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나 나를 알아가고, 너를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 '우리'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나를 포함한 환경과 그리고 세계를 이해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것이 청소년의 공동체성 향상에 의미있는 변화를 이끌어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둘째, 프로그램 실시 전후에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자기표현, 낙관성, 행복감은 유의미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문항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그 이유를 추정해보면, 자기표현의 문항들은 '나는 의견을 말할 때 또박또박 명료하게 말한다'와 같이 주로 언어적으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본 프로그램은 자신에 대한 고찰이나 자신의 생각을 발표하는 내용은 거의 포함하고 있지 않고 주로 몸 동작이나 작업 등을 통해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기 때문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또한 자기표현, 자기존중감이나 낙관성, 행복감 등은 단기에 변화되지 쉽지 않은 개인 내적 특성으로서 두 달 동안의 교육프로그램 경험으로는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지 못했을 수 있다고 추정된다.

이에 따른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본 연구는 인문예술 교육의 청소년의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있음을 검증함으로써 문화예술분야의 인문교육적 가능성을 확장시키는데 기여했다고 본다. 류준호 등[2]은 문화콘텐츠에 대한 연구들을 대상으로 한 메타분석 결과 연구의 49.2%는 인문학적 접근의 연구이며 문화콘텐츠의 활용과 확산의 측면에서 효과를 검증한 연구는 매우 미미함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향후 청소년의 인문학적 소양 및 인성 발달을 위한 문화예술의 학제 간 연구의 가능성을 높이는데 기여했다고 본다.

또한 본 프로그램은 철학과 무용, 영화와 시각예술 분야의 전문가가 협업하여 제작함으로써 다른 프로그램과는 차별적이고 다양한 접근 방식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고 본다. 즉 청소년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자료와 주제를 제시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과 관여도 수준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다고 본다.

이외에도 프로그램의 교육 시기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5월 중에 실시하였는데, 이 시기는 청소년 초기로서 아동에서 성인기로 이동하는 과도기이고 관심의 초점이 부모에서 또래로 변해가고 자신에 대한 탐구가 일어나는 등 큰 변화를 경험하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 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써 청소년의 사회성을 유의미하게 향상시켰다는 것은 앞으로 청소년 초기에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혼란스런 초기 청소년기에 사회성 발달을 촉진함으로써 적응을 더 용이하게 도울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References

- [1] G. R. Jeon, *The Journal of Cultural Policy*, Vol.31, No.1, (2017):76-97
- [2] J. H. Yoo, S. K. Yoon, Y. J. Lee, *Research in Media Science*, Vol.10, No.1, (2010):124-165
- [3] E. Y. Kim, *Journal of Arts Management and Policy*, Vol.19, No.-, (2011):5-31
- [4] J. E. Lim, *A Study on the Effective Management of Culture and Arts Education Programs*, Dankook University, Master's Thesis, (2006)
- [5] S. K. Cho, S. J. Kim, *Journal of Arts Management and Policy*, Vol.32, No.-, (2014):145-171
- [6] Anne Bamford, *The wow factor: global research compendium on the impact of the arts in education*, Hangil Art, Korea, (2007)
- [7] Y. Baik, *What is Integrated Art Education?*, Communication Books, Korea, (2015)
- [8] S. Y. Kim, K. M. Lee, *Research Journal of Art Therapy*, Vol.7, No.6, (2010):1333-1355
- [9] Y. K. Jung, S. B. Park, Y. Baik, K. H. Kim, M. S. Shin, J. Lee, M. K. Kim, B. N. Kim, *Journal of Korean Academic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Vol.25, No.4, (2014):203-208
- [10] J. E. Lim, *Master's Thesis, A Study on the Effective Management of Culture and Arts Education Programs*, Dankook University, (2006)
- [11] *The Effectiveness Evaluation Study on the School Culture and Art Education*, Korea Arts & Culture Education Service, (2010)
- [12] M. S. Jeong, K. W. Mo, M. J. Seog, H. K. Kim, S. R. Park, *The Journal of Yeolin Education*, Vol. 20, No. 1, (2012):165~194
- [13] riikka pahkala, *Finnish Education Field Report*, Dampus books, (2013)
- [14] M. H. Baek, H. S. Lee, *Korean Journal of Culture and Arts Education Studies*, Vol. 5, No. 3, (2010):127-158
- [15] Jermyn, H., *The art of inclusion*, july arts council england, north west: Learn to frame and solve problems through the arts. *International Journal of Leadership in Education*, (2004):1-23
- [16] Scottish Government Social Research, *Evaluation of big noise*, Sistema Scotland. Scotland: The Scottish Government. (2011)
- [17] <http://www.ggoomggi.go.kr/> Retrieved June 25 (2017)

- [18] <http://www.sfac.or.kr/html/education/youth.asp>, Retrieved January 20 (2017)
- [19] E. H. Cho, The research for using Art Therapy in Middle School Art Curriculum,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2006)
- [20] J. Ok, Relationship between attachment security and depression in adolescence: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perceived competence [dissertation]. Seoul: Ewha Womans University; Korean, (1998)
- [21] Y. J. Oh, Predictors of developmental trajectory change and clustering related to adolescents' internalizing & ex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dissertation]. Chung-Ju: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Korean, (2010)
- [22] E. J. Kwon, Y. K. Kim, Adolescence, Kyoyook Books, Korea, (2007)
- [23] K. J. Ok, Group Art Therapy: Theory and Technique, Hana Medical Publishing, Korea, 2006, [24] J. H. Whang, M. Gong, Journal of Play Therapy, Vol.7 No.1, pp.105-123, (2003)
- [25] E. S. Lim, "Effects of Group Art-Therapy on Improving Self-Esteem and Sociality of Students Damaged by Bullying", Joongang University (Master's thesis), (2005)
- [26] Seoul National University: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Foundation, Comprehensive Survey of Child and Youth in Korea, Ministry for Health and Family Affairs, Seoul, (2009)

